

고 권 한 유 산 , 자 위 의 보 검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이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미국에 의해 강요되어 신성한 강토와 수천수만 인민의 머리에 가슴아픈 참화와 엄청난 재난을 들먹인 전쟁발발의 6.25를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어언 예순네해가 흐른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는것은 가털적절한 3년간의 대결에서 어떻게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과 그 추종국가군대들을 타소했는가에 대한 회고이다.

갈마드는 무수한 추억속에서도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히 분쇄해버린 자위의 총대에 대한 생각이다.

…총신과 포신을 꺾은 선반들과 탄창을 찍어낸 프레스를 비롯한 각종 기계설비들이 옛모습 그대로 보존돼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며 고대없이 일하고 끼니를 드는 시간조차 아까와 한쪽 호주머니에는 통강병이알, 다른 호주머니에는 소금을 넣고 찢으며 포신을 만들고 수류탄을 조립한 기계공들의 위훈이 새겨져있는 곳이 지금도 사람들의 발걸이 끊기지 않는 평안남도 군자리의 당시 지하병기공장 현장이다.

바로 그 공장에서 미군이 눈이 달린 포탄을 날리다가 질겁해한 82mm박격포를 비롯하여 곡사포들과 화력무기인 기관단총과 탄알, 수류탄 등이 대량생산됐다.

언제인가 현지지도의 길에서 성친을 묻 지나시던 위대한 김일장주석께서는 한 고개마루에서 군자땅을 바라보시며 전쟁시기 기관단총과 박격포를 만든 군자리병기공



국방공업발전에 깃든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가고있는 근로자들—평원혁명사적지에서—

장 생산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나는 전승의 축포를 볼 때 그 꽃보다 한송이한 송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셨다.

하다면 전승의 그날을 앞당기며 전신의 무기와 탄약수요를 충당한 군자리지하병기공장은 어떻게 생겨나 전승의 축포성에 기여했는가.

세상에 알려진것처럼 미국이 조선전쟁을 준비하면서 1차적인 공중타격대상으로 정한것은 병기공장이었다.

그러나 전쟁초기부터 수많은 비행기를 동원해 폭격에 광분했지만 기도를 달성할수 없었다.

전쟁의 국면과 앞날을 내다보시고 무기와 탄약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을 그 승패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

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 파란성있는 조치에 의해 미국의 기도가 풍지박산났던것이다.

미국이 인민군대에 대한 병기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획책하고있는것을 간파하신수령님께서는 전시에 평양의 병기공장을 비밀리에 군자리지하강으로 신속히 이설하도록 하시고 여러차례 공장을 사찰하시면서 병기생산을 중단없이 벌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셨다.

세상에는 나라의 국방공업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도 군자리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준엄한 전화의 이날 최고사령관이 최고사령부를 떠나 병기공장을 사찰하면서 석수벌이치고 알반이 드러운 지하강도의 생산현장을 일일이 돌아보며 전신생산의 전당과 방도를 가르쳐

주고 무기와 탄약을 더 질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고무한 력사에 전례없는 일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었던것이다. 전신의 어려운 그 나날 정전이 되면 우리는 초불을 켜놓고 일할수 있지만 지하에서 일하는 병기공장 노동자들은 기계를 돌릴수 없게 된다고 하시며 최고사령부에 배당된 발전기도 병기공장에 보내도록 하신 수령님이시었다.

전쟁전기만 미군의 그 어떤 폭격에도 끄떡하지 않았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에도 군전지 견제해있는 군자리지하강도는 말그대로 천연 요새, 천연엄폐호였다. 미국이 1950년 8월 평원리에 대한 대규모적인 폭격을 감행하고 하나밖에 없는 북조선의 병기공장을 파괴했다고 호언장담하며 《추백》까지 들었지

를 마친신 길로 공장 연봉호 기술으로 향하시었다. 연봉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택하느라고 그이께서 타신 차는 험한 길을 쫓추며 달렸고 길을 물어보고 지도를 보느라 자주 멈추어서지 않았던 안되겠다. 이렇게 연봉호기술에 이르신 원수님께서는 불수룩 경치가 좋다고, 명

를 지어주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껏 휴식할수 있게 해주자고 하시며 설계와 자재보장, 건설력량을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들도 많지만 그 어느 나라의 령도자도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건설을 구상하고 그 위치선정을 위

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 주신 명당자리에 이설된 군자리병기공장에서는 전신의 무기와 탄약수요를 믿음직하게 보장했다.

그날의 《멸적의 총포탄을 더 많이 전선으로》라는 생산자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군자리병기공장의 강도를 울리는듯싶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무기를 만드는것이 아니다,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나라의 국방력을 힘있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이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자기의 무기를 억세게 버려나갈것이라고 하신수령님의 총대중시, 자립적국방공업중시의 그 말씀이 군자리의 산발넘어 오늘도 온 나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기관단총생산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국방공업이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이것은수령님께서 물려주신 더없이 고귀한 유산으로, 국방건설의 튼튼한 밑천으로 되었다고 하시었다.

지난날 침략세력이 5만발총과 대포, 군함을 가지고 달려들 때 화승총 하나 변변히 만들수 없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조선이 미국을 타승한 강대하고 존엄 높은 무적의 강국으로, 세월을 이어 자위의 강새로 높이 솟아있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위대한수령님의 자립적국방공업건설업적은 영원불멸하다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과학자휴양소, 위성과학자거리가 일떠서고있는것이다. 래일에는 또 미래과학자거리가 번듯하게 일떠서게 될것이다. 하기에 오늘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이의 뜻대로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과학학의 위력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지식경제의 지름길을 개척해나가는 투쟁에서 자기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봉호기술에 몸소 정하신 휴양소의 명당자리는 단지 과학자들이 휴식의 여가를 보려는 휴양소가 일떠서는 터전이 아니다. 이것은 바야흐로 세계에 앞서나가는 지식경제강국이 태어나는 터전이다.

최 명 길

제분재경쟁에서 특별전시상을 수여받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김정일화가 전시된것으로 하여 국제분재경쟁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박람회 품위가 한층 높아졌다고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제분재경쟁에서 특별전시상을 수여받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김정일화가 전시된것으로 하여 국제분재경쟁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박람회 품위가 한층 높아졌다고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제분재경쟁에서 특별전시상을 수여받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김정일화가 전시된것으로 하여 국제분재경쟁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박람회 품위가 한층 높아졌다고 언급하였다.

제분재경쟁에서 특별전시상을 수여받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김정일화가 전시된것으로 하여 국제분재경쟁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박람회 품위가 한층 높아졌다고 언급하였다.

호탕한 웃음

미국이 끝끝내 조선전쟁을 도발했을 때였다. 나라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 그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비상회의를 소집하셨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장내는 엄숙했다. 창밖에서 내리는 대출기같은 비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있었다.

그런데 문득 수령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이어 우렁우렁한 웃음이 들려왔다.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하시며 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하시는수령님의 말씀이었다.

이윽고 회의실에 들어서시어 언제나

질문 없는 취재

전쟁이 한창인 때 어느날 평양주재한 외신기자가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요청해 최고사령부를 찾아왔다. 미국의 대규모적인 《신문세》와 관련해 금후 전쟁의 전망은 어떠하겠는가 그의 관심사였다. 연연중 서러도는 긴장감을 늦추며 그가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섰을 때였다. 넓은방 한쪽에 있는 작전대대에서 수령님께서 무엇인가 보고계셨다. 그리고 그의 곁에 한줄배기 병사가 서서 이야기하고있었다.

그는 내 안 일 군 으 로 부 러 최고사령관께서 병사의 학습정형을 료해하신다는것을 알게 됐다. 그이께서 매일 외국어단어 몇개씩 외우도록 과제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병사가 맘을 빼고있다는것이였다.

한 일군이 받은 과업

주제39(1950)년 11월중순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은 함경남북도일대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의 파괴정형을 조사하고 복구할 안을 세울때 대한 과업을 받게 됐다. 모든 물질인적자원과 력량이 당면한 전신생산을 위해 총집중되고있는 때에 복구안이라는 새 과업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가렬한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준엄한 정세에 대처해 긴박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시로 제기되고있는 그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수령님께서는 복구와 창조를 구상하고계셨다.

물론 우리는 지금 힘겨운 전쟁을 하고있으며 전쟁은 장기화되고 더욱 가렬

와 같이 환하신 존안으로 장내를 둘러보고나신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셨다.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우습게 안다.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태연자약한 기상으로 오만방자한 침략세력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할 결심과 의지를 표명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그대로 승리의 선언과도 같았다. 그때로부터 3년여의 세월이 지나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막을 내렸던것이다.

앞으로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게 될 사람들을 미리부터 준비시키는 학습이라는 말을 듣고는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나신 기자는 머리를 떨군채 발소리를 죽이며 슬며시 방안을 나섰다. 그리고 영문을 몰라하며 뒤미처 따라 온 일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취재를 끝냈다. 《신년의 대결에서 승리한 조선, 김일성동지는 전후복구건설을 설계하고계신다》. 이것이 내가 만들 기사의 제목이다. 그러면서 그는 수령님의 집무에 방해가 될가 하고 인사를 못하고 되돌아갔는데 그이게 자기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그 일군에게 신신당부했다. 수령님께서는 그 외신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호방하게 웃으셨다.

앞으로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게 될 사람들을 미리부터 준비시키는 학습이라는 말을 듣고는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나신 기자는 머리를 떨군채 발소리를 죽이며 슬며시 방안을 나섰다. 그리고 영문을 몰라하며 뒤미처 따라 온 일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취재를 끝냈다. 《신년의 대결에서 승리한 조선, 김일성동지는 전후복구건설을 설계하고계신다》. 이것이 내가 만들 기사의 제목이다. 그러면서 그는 수령님의 집무에 방해가 될가 하고 인사를 못하고 되돌아갔는데 그이게 자기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그 일군에게 신신당부했다. 수령님께서는 그 외신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호방하게 웃으셨다.

해지고있다. 그러나 어느 때 가서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길것이며 승리한 조국강토에 더 큰 공장들을 세울것이다. 이것은 승리를 확인하시는 수령님의 믿음이고 락관이었다.

본사기자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

인도네시아신문 《레부블리까》는 《선군령장과 사회주의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자주의 강국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되고있다. 이 놀라운 현실은 김정원수님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조선반도정세는 매우 일촉즉발였다. 미국은 조선의 평화적외상발사를 걸고들면서 년초부터 대조선압살책동을 발발경으로 벌렸다. 조성된 협박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인무수행과 관련한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공에 대해 로골적으로 떠들어대었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대상물들을 타격하는 전략로케트군대들과 장거리도발병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 집단들을 1호전투군부대에로 전임임시키게 된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미국의 무모한 책동에 대한 엄숙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전술타격수단들을 남조선지역 상공에 전입시켜 조선의 지상목표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벌리는것으로 대담해나섰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 핵전쟁은 피할수 없는것으로 여겨졌다. 조성된 협박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인무수행과 관련한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공에 대해 로골적으로 떠들어대었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대상물들을 타격하는 전략로케트군대들과 장거리도발병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 집단들을 1호전투군부대에로 전임임시키게 된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미국의 무모한 책동에 대한 엄숙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전술타격수단들을 남조선지역 상공에 전입시켜 조선의 지상목표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벌리는것으로 대담해나섰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 핵전쟁은 피할수 없는것으로 여겨졌다. 조성된 협박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인무수행과 관련한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공에 대해 로골적으로 떠들어대었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대상물들을 타격하는 전략로케트군대들과 장거리도발병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 집단들을 1호전투군부대에로 전임임시키게 된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으며 은 겨레가 그이의 대담결정들을 따라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애국의 대애에 뛰어들었다.

지난 날이 일제식민지통치의 수난의 그 세월 끼쳐가는 민족의 운명을 두고 몸부림치며 애국적광성과 기개로 민족의 일을 지키기 위해 한몸을 바친 유명무명의 애국적인 민족선열들속에는 만해 한봉운도 있다. 그는 총을 잡고 의병투쟁에도 나섰고 대로는 3.1의 광장에서 《조선독립 만세!》의 열변을 토하기도 했고 빼앗긴 《님》의 재생과 나라의 해방을 소원해 시어에 담기도 했다.

만해 한봉운은 1879년 8월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출생했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배운후로는 학력을 가지지 못했던 그는 《…력사연구에 빛나는 의인결사의 언행》과 《세상형편, 국가사회와 모든 일》을 알도록 깨우쳐준 선친의 훈계를 따라 애국의 길을 걷게 됐다.

갑오농민전쟁에 결기한 농민봉기군에서 활동하다 습

백두산을

우려르며

진 부친과 형을 잃은 아홉과 수많은 동포형제들의 희생을 겪으면서, 일제의 조선침략이 더욱 로골화되되 나라는 겨레의 운명이 경각에 이른 엄숙한 현실앞에서 통한과 고뇌로 빈민하던 그는 본연히 의로운 길에 나서게 됐다.

《…갑신년(1904년)의 전 해로 대세의 초석이 처음으로 기울기 시작하여 무슨 조약이 체결되어 웃기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경성을 향하여 모여든다는 말이 들리었다. …너무도 크게 국가의 대명맥이 움직여서는 편이 되어서 우리 홍주서도 정사에 분주하는 여러 선진자들은 이곳저곳에 모여서 수군수군하는 법이 심상한 기세가 아니었다. 그래서 좌우간이 모양으로 산속에 파묻혔 매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와 서술이 있다는 방편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다. 나는 나의 전정을 위하여 실력을 양성하겠다는것과 또 인생 그에게 무엇을 좀해결해보겠다는 불같은 마음으로 한양가던 길을 구부러

사람을 찾아 강원도 오대산의 백담사까지 가서 불도를 닦기 시작하였다.》(1930년 5월 잡지 《삼천리》)고 그는 자기 심정을 내놓았다.

이렇게 출가승이 된 한봉운은 절에 묻혀 자야수양만 한것이 아니라 중생구제를 위한 현실참여의 길을 모색하고 실행하기 위해 심신을 기울였다. 나라를 위하러면 쉼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1908년 일본 고마자와대학에서 불교와 서양철학을 청강하고 여러 지방을 돌아보았으며 로세아의 울라지보스토크도 편답했다. 《한일합병》날조된 일제가 《한일불교동맹조약》의 미명하에 식민지 지배의 마수를 불교계까지 뻗고자 할 때에는 승려들이 대회를 열고 조약체결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으며 1911년 여름에는 만주로 들어가 의병학교를 설치하고 독립군양성에 심혼을 다 쏟기도 했다.

그후에는 《조선불교유신론》을 발표하고 불교가 스님만의 불교, 산승불교가 아니라 현실적이고거를 안고 민

중속에서 민족부흥과 민주주의, 민족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 애국종교가 되여야 한다는 불교개혁, 민불교리념을 제기하고 그 실천을 위해 몸담았다. 그는 1914년 《팔만대장경》을 우리 말로 번역 체계화한 《불교대전》을 비롯한 불교대중화를 위한 저서들을 집필발표하였으 며 또한 잡지 《유신》을 발간하여 대중계몽활동에도 힘썼다. 3.1인민봉기때에는 민족대표 한사람으로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폐히 발표하라》는 《공약3장》을 내놓고도 열면 연설로 군중을 반일항전으로 떠밀었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었을 때에도 전향서나 반성문이 아니라 조선독립의 당위성과 일제매망의 필연성을 논증한 정행동인 아니던 불가능하다며 주장한 행동과였다.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는 변조사도, 사식도, 보석도 거절했다. 후날 일본사람들은 그를 매수하려고 국유지를 매수했다고 구술했다. 그러나 한봉운은 그것도 단호

히 거절하였다. 동료들과 친지들이 돈을 모아 서울 성북동에 자기 집을 지어줄 때에 그는 총독부 집어기 보기 싫다고 하면서 거이어 고과 반대방향으로 집을 짓게 하였다고 쓰시었다.

일제식민지독압통치가 절정에 달하였던 그때 그가 일제의 매망과 조국해방을 굳게 믿어마지 않은것은 민족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가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성업의 대장렬에 매혹된 언넉의 분출이였다. 조선독립은 우리 민족스스로의 결사항전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정신과 백두산의 민족대표 33인중 한 사람으로 나섰던 사람이다.

그는 불교승이였는데 조선독립은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스스로의 결사적인 행동이 아니던 불가능하다며 주장한 행동과였다.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는 변조사도, 사식도, 보석도 거절했다. 후날 일본사람들은 그를 매수하려고 국유지를 매수했다고 구술했다. 그러나 한봉운은 그것도 단호

히 거절하였다. 동료들과 친지들이 돈을 모아 서울 성북동에 자기 집을 지어줄 때에 그는 총독부 집어기 보기 싫다고 하면서 거이어 고과 반대방향으로 집을 짓게 하였다고 쓰시었다.

일제식민지독압통치가 절정에 달하였던 그때 그가 일제의 매망과 조국해방을 굳게 믿어마지 않은것은 민족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가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성업의 대장렬에 매혹된 언넉의 분출이였다. 조선독립은 우리 민족스스로의 결사항전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정신과 백두산의 민족대표 33인중 한 사람으로 나섰던 사람이다.

그는 불교승이였는데 조선독립은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스스로의 결사적인 행동이 아니던 불가능하다며 주장한 행동과였다.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는 변조사도, 사식도, 보석도 거절했다. 후날 일본사람들은 그를 매수하려고 국유지를 매수했다고 구술했다. 그러나 한봉운은 그것도 단호

히 거절하였다. 동료들과 친지들이 돈을 모아 서울 성북동에 자기 집을 지어줄 때에 그는 총독부 집어기 보기 싫다고 하면서 거이어 고과 반대방향으로 집을 짓게 하였다고 쓰시었다.

일제식민지독압통치가 절정에 달하였던 그때 그가 일제의 매망과 조국해방을 굳게 믿어마지 않은것은 민족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가 김일성장군님의 조국해방성업의 대장렬에 매혹된 언넉의 분출이였다. 조선독립은 우리 민족스스로의 결사항전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정신과 백두산의 민족대표 33인중 한 사람으로 나섰던 사람이다.

그는 불교승이였는데 조선독립은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스스로의 결사적인 행동이 아니던 불가능하다며 주장한 행동과였다.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는 변조사도, 사식도, 보석도 거절했다. 후날 일본사람들은 그를 매수하려고 국유지를 매수했다고 구술했다. 그러나 한봉운은 그것도 단호

하늘같은 도량과 은총은 그의 자손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과 함께 갑육문을 나선 그 길로 가족과 함께 공화국북반부에 삶의 터를 정한 한봉운의 아들 한보국을 전상자병원에서 치료받고 죽을 초저까지도 전후의 어려운 속에서도 평양의 대동강변에 새 살림집을 마련해 주셨으며 그가 환갑을 맞을 때에는 생일상도 보내주신 김일성주석이었다.

승고한 사람과 고결한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봉운을 반일애국지사로서 내세워주시며 그의 님이 습배한 작품들을 모두 발굴하여 출판하도록 이르고 그의 생애로운 해발로 우리 조국산천을 비쳐줄 날이 멀지 않음을 깊이 명심하라고 당부해온 그는 8.15를 한해 앞두고 입멸하면서는 자녀들에게도 일제는 반드시 멸망하고 조국은 해방된다, 인제나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유언을 남겼다.

백두산을 우러르며 민족적 광성과 애국적정열을 굽힘없이 조선독립을 위해 적을 힘이나 바친 한봉운의 의거를 귀중히 여기신 김일성주석의

본사기자